『신앙과 학문』 31(2). 91-115
https://doi.org/10.30806/fs.31.2.202606.91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A Practical Theological Study Based on Emmanuel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류 영 식 (Young Shik Ryu)**
배 귀 희 (Kwi-Hee Ba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is article reinterprets the relationship between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through Emmanuel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and the biblical theology of shalom. Existing studies on missional ecclesiology have mainly emphasized the church's identity, practice, leadership, and publicness, while studies on resident self-governance have largely focused on institutional design, participati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and social capital. This study identifies a shared limitation in these discussions: the insufficient articulation of an ethical grammar that explains why the church and local communities must respond to the vulnerable Other.

Using a theoretical and integrative literature-based approach, this article examines Levinas's concepts of the face, asymmetrical responsibility, hospitality, substitution, and the third, and places them in conversation with Missio Dei, the imago Dei, the incarnation, the command to love one's neighbor, Matthew 25, Luke 10, and especially Jeremiah 29:7. The study argues that a missional church should not approach residents as objects of evangelistic expansion, recipients of religious programs, or instruments of institutional growth. Rather, residents should be encountered as concrete others whose dignity calls the church to listening, hospitality, public responsibility, and shared participation.

Likewise, resident self-governance should not remain at the level of procedural participation or

* 2026년 5월 13일 접수, 6월 2일 최종수정, 6월 5일 게재확정.

**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일반대학원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 박사과정, 전남광주특별시 장성군 남면 백운길 18, rys2580@hanmail.net

*** 숭실대학교(Soongsil University) 사회과학대학 행정학부 교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khb07@ssu.ac.kr

administrative cooperation; it should be understood as an ethical practice that protects vulnerable voices, widens participation, fosters deliberation, and cultivates trust for the common good. The article further proposes a practical model of "listening–hospitality–co-decision–institutionalization of responsibility," through which the church may participate in local self-governance without religious domination or strategic self-expansion.

In conclusion, the convergence of Levinasian ethics,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offers a practical-theological paradigm for a community for and with the Other, in which public discipleship is embodied through the pursuit of local shalom.

Key words: Missional ecclesiology, Emmanuel Levinas, ethics of the other, resident self-governance, hospitality, publicness, shalom, public discipleship

I. 서론

현대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의 약화, 지역사회와의 거리감, 그리고 성장주의에 대한 피로라는 삼중의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여전히 선교를 말하지만, 그 선교가 실제 현장에서는 조직 확장과 프로그램 유지의 언어로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동시에 주민자치는 제도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참여의 형식만 남고 공공적 책임과 공동체적 신뢰의 밀도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현상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공공적 삶이 어떤 관계 윤리 위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이해하며, 교회의 자기 보존과 확장주의를 비판해 왔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교회 성장 전략이나 이미지 관리 수단으로 이해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선교는 교회 확장의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의 공적 증언이며, 교회는 자기들만의 폐쇄적 세계를 형성하는 태도를 넘어 타자를 향해 열린 증언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일관된 지향이다.

주민자치 역시 주민 참여와 협치를 강조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절차적 참여에 머무르거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의 만남은 단순한 협력 모델을 넘어, 교회와 지역공동체가 타자를 어떠한 윤리적 관계 안에서 만나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에 주목한다. 레비나스는 얼굴, 비대칭적 책임, 환대, 대속, 제삼자의 개념을 통해 공동체를 타자에게 열린 책임의 구조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통찰은 선교적 교회가 타자를 선교의 대상으로 환원하지 않고 존엄한 이웃으로 만나는 이유를 설명할 뿐 아니라, 주민자치를 단순한 참여 제도가 아닌 책임과 환대의 윤리적 실천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물론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만으로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근거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선교적 교회론은 왜 교회가 타자에게 책임져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창조, 성육신, 십자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샬롬의 신학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 선교적 교회론, 주민자치 담론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 논의가 서로를 보완하고 비판하며 지역의 샬롬을 향해 나아가는 구조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담론을 재해석하고, 양자를 연결하는 규범적·실천적 틀을 제시하

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담론이 공유하는 윤리적 공백을 분석하고, 레비나스의 얼굴, 책임, 환대, 제삼자 개념을 통해 선교적 교회와 주민 자치의 통합을 위한 실천 모형으로‘ 경청-환대-공동 결정-책임의 제도화’의 네 단계를 제시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연구의 공백과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제Ⅲ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정초와 성서적 근거를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분석하고 이를 주민자치의 윤리적 원리로 재해석한다. 제Ⅴ장에서는 선교적 교회의 주민자치 참여 의의와 실천 모형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II. 선행 연구의 검토와 공백

국내 레비나스 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레비나스 철학 전반의 입문과 해설에 관한 연구이다. 강영안은 레비나스를 서구 근대 주체 철학에 대한 근본 비판자로 읽으며 얼굴, 타자, 책임의 개념을 윤리의 출발점으로 정리하였다(강영안, 2005). 이러한 해설 연구는 레비나스의 난해한 사유를 한국 철학계와 신학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레비나스의 핵심 주장은 이것이다. “내가 타인의 존재를 이해하는 가운데 그에게 말하는 사건은 이해의 차원에 있지 않고 만남의 사건 자체에 있다”. 타인과의 만남은 내가 결코 그 위치에 설 수 없는 비대칭적 사건으로, 우리가 어떤 주도권도 가질 수 없다(강영안, 2005: 124-128).

둘째는 레비나스 윤리의 정치적 확장에 관한 연구이다. 박예은은 제삼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레비나스 윤리가 일대일 대면 관계를 넘어 정의와 정치의 영역으로 이행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박예은, 2016). 이 연구는 레비나스가 단지 개인윤리에 머문다는 통념을 넘어 제도, 배분, 비교의 문제까지 사유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자치와 같은 공적 제도 논의에 레비나스를 접목할 수 있는 이론적 가교로 작용한다.

셋째는 공동체와 환대의 관점에서 레비나스를 읽는 연구이다. 심상우는 마을공동체를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로 재독해하며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공동체를 넘어선 공동체’라는 이상을 제시하였다(심상우, 2019). 김경은(2022)은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을 실천 신학적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환대가 단순한 친절이나 수용이 아니라 자기 비움과 타자 개방의 영성임을 강조하였다. 김경은은 레비나스의 환대 윤리를 그리스도교 환대 영성과 연결시키려는 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박종균(2025)은

타자의 얼굴과 환대를 성서 윤리 차원에서 검토하여, 레비나스의 사유가 기독교적 이웃 사랑과 깊이 교차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해외 연구에서는 레비나스를 현상학, 윤리학, 정치철학, 종교철학을 가로지르는 사상가로 다루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Critchley & Bernasconi, 2002 ; Critchley, 2014). 그러나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레비나스 개념 자체의 해명이나 정치 철학적 확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매개하는 실천 신학적 틀로 발전시키는 연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 지점이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연구 공백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를 선교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재정의해 왔다. Bosch는 선교 이해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선교를 교회의 부속 기능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로 파악하였고(Bosch, 김병길·장훈태 역, 2011), Guder는 북미 상황에서 교회 전체의 구조와 삶을 선교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Guder, 박영돈·손신·황을호 역, 2013). Newbigin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를 복음의 공적 증언 공동체로 이해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해석 기능을 강조하였다(Newbigin, 허성갑 역, 2007).

한국의 연구도 상당한 축적을 보였다. 이후천은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사례와 기준지표를 검토하며, 선교적 교회의 핵심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냄 받은 공동체의 정체성 회복에 있음을 논증하였다(이후천, 2013). 박원길과 황병준은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을 위해 목회 리더십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박원길·황병준, 2015), 주상락과 최동규는 한국형 선교적 교회 모델을 유형화하여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구체화하였다(주상락·최동규, 2021). 성석환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한국적 상황과 공공성의 과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성석환, 2024).

그럼에도 선교적 교회론 연구는 대체로 교회의 정체성, 사역 유형, 리더십,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중요한 주제로 삼았지만, '타자란 누구이며, 교회는 타자와 어떤 관계 구조 속에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정초를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 그 결과 선교적 교회론은 때로 전략 담론으로, 때로는 지역사회 친화적 교회 운영론으로 소비될 위험을 남긴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취약한 지점을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로 보완하고자 한다.

주민자치 연구는 주민 참여, 위원회 구성, 법제화, 주민역량, 사회적 자본, 행정 협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김순은은 주민자치 실험을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가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았다(김순은, 2014). 윤원수와 양덕순은 주민자치센터

참여 만족이 지역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윤원수·양덕순, 2014) 행정안전부의 우수사례집 역시 주민자치가 지역 문제 해결과 생활밀착형 협치를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임을 보여 준다.(행정안전부, 2022)

그러나 주민자치 연구는 대체로 제도 설계와 운영 성과, 참여율과 사례 분석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주민자치의 제도화와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주민이 왜 타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공공성은 어떤 윤리적 기초 위에 성립하는지, 약자와 소수자의 얼굴은 제도 안에서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지점에서 주민자치는 행정 보조 장치나 지역 이익 조정 기제로 축소될 위험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주민자치 연구는 제도를 설명하는 데는 강하지만 그 제도를 지탱하는 윤리적 문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선교적 교회론은 공공적 참여의 신학적 동기를 제공하지만 타자 개념의 철학적 정초가 약했고, 주민자치 연구는 제도와 성과를 다루지만 책임과 환대의 윤리학이 약했다. 본 논문은 이 두 담론의 공백을 레비나스 윤리와 성서적 샬롬 신학을 통해 동시에 메우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의 독창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레비나스 연구와 선교적 교회론, 주민자치 연구를 하나의 규범적 틀 속에서 교차 독해한다. 둘째, 철학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Missio Dei, imago Dei, 성육신, 이웃 사랑, 샬롬의 신학을 결합하여 책임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셋째, 주민자치를 단순한 행정제도가 아니라 책임·경청·숙의·신뢰의 윤리적 실천으로 재정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교회의 주민자치 참여를 전략적 선택이나 부가적 봉사가 아니라, 타자를 향한 선교적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는 통합 논지를 전개한다.

III.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정초와 성서적 근거

1.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론의 출발점은 1952년 빌링겐 선교대회 이후 본격화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은 선교를 교회의 고유 사업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운동으로 이해하도록 전환시켰다.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자가 성령을 보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구조 속에서 교회는 선교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증언자로 이해된다(Guder, 김병길·장훈태 역, Bosch, 2011 ; 박영돈 외 역, 2013).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수행하는 개별 활동을 넘어,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을 하나님의 사

역 관점에서 재정의하는 신학적 접근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를 단순한 제도적 조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미 활동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지역사회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유지한다면 과거의 이원론적 구분을 극복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닌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존재 방식에서 찾는다. 결국 선교는 교회의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본질 그 자체이며, 모든 교회 활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선교적 교회론은 복음과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한다. 즉, 교회는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거나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역사회와 문화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별하고 그 사역에 참여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사역이 복음 또한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정의, 화해, 평화, 창조 세계의 회복을 포함하는 총체적 구원으로 확장된다. 전도·사회봉사·정의 실현은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은 교회의 자기중심성을 해체한다. 교회는 선교를 통해 자신을 확장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세상 한복판에서 그분의 화해와 정의와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는 공동체이다. Newbigin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교회를 공적 진리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보았고(Newbigin, 허성갑 역, 2007), Moltmann은 교회의 존재가 하나님의 보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Moltmann, 1977).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교회가 세상 밖에서 거룩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보냄 받은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도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론이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영향력 회복 전략이나 확장 주의적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은 자신의 실천이 타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자를 교회의 목적 아래 포섭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자기 비판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자기비판의 철학적 근거를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에서 찾고자 한다.

2. 하나님 형상, 성육신, 이웃 사랑의 공공적 의미

선교적 교회가 타자에게 책임져야 하는 성서적 근거는 무엇보다 하나님 형상론에서 시작한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한다. 이는 타자를 단지 선교의 대상이나 사역의 수혜자로 볼 수 없게 만든다. 타자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엄한 존재이며, 따라서 교회의 모든 선교적 행위는 타자의 고유성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성육신은 이 원리를 더욱 구체화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고통과 일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뿌리내리고 그 삶의 자리에 동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사회 참여론이 아니라 성육신적 논리에 기초한다. 교회는 지역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주민을 추상적 집합이 아니라 이름과 얼굴을 가진 이웃으로 만나야 한다.

이웃 사랑의 명령 역시 경계와 배제를 넘어서는 책임의 방향을 제시한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시킨다. 이는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 모두에 중요한 전환을 요구한다. 주민자치의 주체를 기존 주민, 다수자, 적극적 참여자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교회의 선교 역시 이미 친숙한 사람들만을 향해서는 안 된다. 참된 이웃 사랑은 경계를 넘어선 책임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5-40절은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한 것임을 밝힌다. 타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레비나스의 철학은 이 성서적 통찰과 깊이 공명한다. 물론 유대 철학자인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기독교 신학 및 선교적 교회론의 맥락으로 전이시킬 때 발생하는 학문적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간과할 수 없다. 레비나스는 신약성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성서(특히 이사야 53장)가 예언한 메시아와 동일 선상에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에게 메시아성이란 기독교의 성육신적 대속 사건이라기보다,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나'의 무한한 책임과 인질 됨(être otage)의 윤리적 구조를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론적·기독론적 불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환대를 메시아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복음서의 시선과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실천적 지평에서 깊은 연대(Continuity)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강영안, 200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 불연속적 지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가운데, 레비나스의 타자 중심적 메시아성을 매개로 삼아 선교적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자치 속에서 '소외된 타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대할 것인가라는 실천적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교회가 가난한 자, 이주민, 돌봄이 필요한 이웃, 지역에서 배제된 주민을 만나는 것은 단순한 복지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 서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공공성은 복음의 외적 홍보가 아니라 취약한 얼굴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3. 샬롬 신학과 예레미야 29장 7절

샬롬은 전쟁의 부재나 개인적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서에서 샬롬은 관계의 회복, 정의의 확립, 삶의 온전함, 공동체의 번영,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사이의 조화를 포함하는 통전

적 개념이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의 목표는 교세 확장이나 종교적 영향력 강화로 제한될 수 없다. 선교는 지역의 샬롬을 향한 참여이며, 그 샬롬은 가장 약한 자를 포함할 때 비로소 참된 샬롬으로 드러난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본 논문의 핵심 성서 본문이다. 바벨론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명하신다(렘29:7). 이 명령은 포로 공동체에게 자기 보존만을 추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평안, 곧 공공선을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동화주의가 아니라, 타향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도시의 복지와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는 소명이다. 예레미야 29장 7절은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의 접점을 성서적으로 정당화하는 본문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세속적 영역'이라고 외면할 수 없고, 주민자치를 '행정의 일'이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다. 교회가 지역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고립, 돌봄 공백, 갈등, 배제, 불신의 문제에 공공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 참여는 샬롬의 추구가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결국 샬롬 신학은 레비나스 윤리와 주민자치 담론을 신학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레비나스가 윤리의 선행성을 말한다면, 샬롬 신학은 그 책임이 향해야 할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타자에 대한 책임은 추상적 도덕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정의를 향한 실천이며, 주민자치는 그 실천이 지역 차원에서 제도화되는 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차원의 샬롬 신학은 성서 본연의 구체적인 '환대의 논리(Theology of Hospitality)'를 통해 보완될 때 비로소 그 실천적 정당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1) '게르(Ger)'에 대한 환대와 하나님의 명령

기독교 신학에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에 대응하는 가장 일차적인 성서적 논거는 구약의 '나그네(Ger, 타자) 환대 사상'이다. 구약성서에서 나그네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 경제적·정치적 보호막을 상실한 '사회적 약자'이자 레비나스가 말하는 '절대적 타자'의 현현이다. 레위기 19장 34절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고 명령한다. 구약의 환대 율법은 이스라엘 자체가 과거에 나그네(타자)였다는 역사적 기억에 뿌리를 둔다. 즉, 타자를 향한 환대는 선택적 자선이 아니라, 신명기적 사상(신 10:18-19)에 나타나듯 타자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존재론적 책임이다(Fraser, 2014).

2) 신약 성서적 근거 : 성육신적 환대와 마태복음 25장

신약성서에 이르러 환대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과 대속을 통해 극대화된다. 신학적으로 환대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라는 타자의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요 1:14)이며, 예수는 스스로를 환대받아야 할 기독교적 타자(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셨다. 마태복음 25장 35-40절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선언은 환대의 신학적 정점이다. 존 쾨니히(König, 1985: 84-89)는 이 문맥을 통해 기독교의 환대가 단순히 손님을 대접하는 에티켓을 넘어, 소외된 타자를 영접함으로써 그 경계선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성례전적 사건'임을 밝힌다.

이는 주도권을 내려놓고 타자의 얼굴에서 무한한 부름을 듣는 레비나스의 현상학과 실천적 맥락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3) 선교적 교회론과의 결합 : 공적 환대로서의 주민자치

따라서 선교적 교회가 주민자치라는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사상적 근거는 막연한 사회 봉사가 아니라, 성서적 환대의 공적 실천이다. 폴(Pohl, 이경직 역, 2004: 23-35)이 지적하듯, 기독교 역사에서 환대는 언제나 교회의 제도적 안정을 깨고 소외된 자들을 공적 공동체의 주체로 복권시키는 전복적 힘을 지녀왔다. 선교적 교회가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에 놓인 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회의 확장 주의적 속성을 비판하고(Newbigin, 1989),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성육신적으로 번역해내는 본질적 선교 수행이다.

이러한 신학적 전제는 주민자치라는 공적 영역과 만날 때 교회의 지역 참여를 단순한 봉사나 행사로 축소하지 않도록 돕는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의사를 결정하는 자치적 실천이다. 교회가 이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웃의 삶에 깊이 연루되어 그들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한 주민자치 참여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가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 속에서 육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V.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공공성의 철학

1. 얼굴과 윤리의 선행성

레비나스 철학의 출발점은 존재론이 아니라 윤리다. 서구 철학이 오랫동안 존재와 인식의 문제를 우선시해 왔다면, 레비나스는 그러한 우선순위 자체가 타자를 동일성 안에 가두는 폭력을 낳는다고 비판한다. 그는 타자와의 관계를 존재의 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타자의 얼굴이 주체에게 먼저 말을 걸고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적 사건으로 이해한다.

타자에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타자에 제공되는 존재는 시간적 존재다. 이 존재는 연기 자체인 자신의 시간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폭력에 맞세운다. 시간이 뜻하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폭력에 바쳐진-존재의 모든 실존이 죽음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 아님'이라는 사실이다. 이'아직 아님'은 죽음에 대하여 물러남이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레비나스의 사상과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타자의 얼굴이다. 그가 말하는'얼굴'은 시각적 형상이나 심리적 인상을 넘어선다. 『전체성과 무한』에서 얼굴은 내가 설명하고 파악하고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를 넘어, 나에게 먼저 말을 거는 타자의 현전으로 제시된다. 레비나스는 얼굴이 동일자의 체계 안으로 완전히 정렬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도 절대적인 것으로 남는다고 설명한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얼굴은 소유를, 나의 능력들(pouvoirs)을 거부한다. 얼굴의 에피파니 속에서, 표현 속에서, 감각적인 것, 아직 포착 가능한 것은 포획에 전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바뀐다. 얼굴은 내게 말을 걸고 또 그럼으로써, 향유든 인식이든 실행되는 내 능력과는 아무런 공통의 척도가 없는 관계로 나를 초대한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이 통찰은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 모두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교회는 지역 주민을 교회 사역의 대상자로 보기 전에 그들의 얼굴 앞에 서야 하며, 주민자치는 참여자를 단지 통계 수치나 대표 집단으로 보기 전에 그들의 구체적 삶의 호소를 들어야 한다. 얼굴은 모든 제도와 프로그램 이전에 놓인 윤리적 원점이다. 이런 점에서 타자의 얼굴은 교회와 주민자치가 자기 목적을 앞세우지 않고 타자의 존엄과 호소를 먼저 듣도록 만드는 윤리적 출발점이 된다.

2. 비대칭적 책임과 대속의 구조

레비나스 윤리의 급진성은 책임의 비대칭성에 있다. 얼굴의 현전은 단순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명령으로 나타난다. 그는 얼굴의 현전을 타자의 무한, 궁핍, 그리고 우리를 응시하는 제삼

자의 현전으로 설명하면서, 타자가 나에게 책임을 요구한다고 본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근대 윤리학이 상호성, 계약, 균형, 보편 규칙을 중시했다면, 레비나스는 윤리의 시작점이 '내 권리'가 아니라 '타자의 취약성'에 있다고 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체는 자기중심적 존재에서 벗어나 타자를 위해 열려 있는 존재로 전환된다. 후기 레비나스의 대속(substitution) 개념은 이러한 책임을 더욱 심화한다. 대속은 타자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영웅주의가 아니라, 타자의 짐이 내 삶을 건드리도록 허용하는 자기 이탈의 구조다. 주체는 타자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앞에서 무관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사유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자기 비움이라는 기독교 신학과도 깊이 공명한다.

물론 비대칭적 책임은 오해될 수 있다. 그것은 부당한 착취를 정당화하는 원리가 아니며, 약한 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윤리도 아니다. 오히려 이 원리는 힘과 자원을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함을 요청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자원과 조직력, 공간을 가진 교회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타자의 필요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주민자치에서도 발언권이 큰 집단은 자기 이익의 최대화보다 취약한 이들의 호소를 먼저 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3. 환대와 자기 비움의 공공성

환대는 레비나스 윤리의 핵심 실천 형식이다. 환대는 타자를 내 체계로 흡수하거나 동질화하는 기술이 아니라, 타자가 타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행위다. 나의 집, 나의 언어, 나의 제도가 낯선 이를 위해 열릴 때 환대는 발생한다. 레비나스에게 집은 소유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타자를 맞아들이는 윤리적 공간이다. 이 개념은 선교적 교회에 중요한 자기비판을 제공한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입장으로만 접근할 때, 환대는 쉽게 온정주의로 변질된다. 그러나 레비나스적 환대는 교회가 먼저 듣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배움의 자세를 취하도록 만든다. 선교는 타자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술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 앞에서 교회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어야 한다.

주민자치에 있어서도 환대는 결정적이다. 형식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주민총회와 회의가 실제로는 특정 시간대, 특정 언어, 특정 문화자본을 가진 사람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회의실 문을 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줄이며, 낯선 주민과 조용한 주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바로 그때 주민자치는 절차를 넘어 환대의 공적 형식이 된다.

4. 제삼자와 정의: 윤리의 제도적 번역

레비나스 윤리가 개인적 관계만을 다룬다는 비판은 제삼자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레비나스에게 제삼자는 한 타자와 나의 관계 안에 이미 함께 현전하는 또 다른 타자이다. 그는 "제삼자는 타인의 눈 속에서 나를 응시한다"고 말하며, 언어와 정의의 문제를 제삼자의 등장과 연결한다(Levinas, 김도형 외 역, 2025). 제삼자의 등장은 비교, 판단, 배분, 법, 제도를 필요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의는 윤리의 배신이 아니라, 다수의 타자들 앞에서 윤리를 사회적으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주민자치는 레비나스 윤리의 공적 번역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주민총회, 의제 선정, 예산 배분, 갈등 조정, 복지 네트워크 형성은 모두 여러 타자의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제삼자의 공간이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얼굴이 더 쉽게 지워지고 어떤 목소리가 더 쉽게 배제되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정의의 제도여야 한다.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공적 영역에 참여할 때 필요한 것은 종교적 헤게모니가 아니라 제삼자에 대한 감수성이다. 교회는 특정 신앙공동체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압력 집단이 아니라, 말하기 어려운 이웃의 얼굴을 공적 언어 속으로 번역해 내는 책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때 레비나스의 제삼자 개념은 교회의 공공성과 주민자치의 윤리적 방향을 함께 제시한다.

5.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네 요소: 경청, 참여, 숙의, 신뢰

레비나스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린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책임 능력을 갖춘 자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밑바탕의 조건이다. 자아는 먼저 독립적 개인으로 세계에 등장한 뒤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타인에 대한 부채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체험한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강제나 지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타자의 부름 앞에서 인간이 비로소 인간으로 눈떠 가는 방식이며, 타율성이 곧 인간성의 근원적 작동 원리임을 보여 준다(Benaroyo, 2022).

본 논문은 레비나스의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서』에 나타난'말함', '환대', '제삼자', '대속'의 개념을 주민자치의 실천적 요소인 경청, 참여, 숙의, 신뢰로 재해석한다. 이 재해석은 레비나스 개념을 단순히 주민자치 용어에 대응시키는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주민자치가 절차적 참여에 머물지 않고 타자의 얼굴을 실제로 보호하는 윤리적 제도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실천 원리를 가져야 하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1) 경청: 말함의 피동적 노출

첫째 요소는 경청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들어 주는 태도에 머물지 않는다. 주민자치의 현장에서 경청은 누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으며, 누가 자신의 고통을 공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적 조건과 연결된다. 주민총회와 공론장이 평일 낮 시간에만 운영된다면 노동자, 돌봄 제공자, 청년층은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또한 행정 언어와 문서 중심으로만 정보가 제공된다면 언어적·문화적 자본이 낮은 주민은 주민자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레비나스적 관점에서 주민자치의 경청은 회의 시간, 정보 전달 방식, 발언 순서, 의제 접근성, 공간의 물리적 개방성까지 포괄하는 구조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레비나스가 말한'말함'은 단순한 음성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주체가 타자 앞에서 자신을 방어 없이 노출하는 윤리적 사건이다(Levinas, 문성원 역, 2024). 필자는 이'말함'의 피동성에 주목하여, 주민자치 현장에서 교회가 미리 준비한 선교적 정답을 내려놓고 주민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윤리적 경청의 토대가 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경청은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가 아니라, 타자의 삶이 교회의 판단과 실천을 흔들도록 허용하는 응답의 방식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가 주민자치에 참여할 때 경청은 선택적 태도가 아니라 공공적 책임의 출발점이 된다. 교회는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교회의 목적에 맞게 선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필요가 교회의 존재 방식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도록 자신을 열어야 한다. 이러한 경청이 가능할 때 주민자치는 행정 절차를 넘어 타자의 호소가 공적 의제로 전환되는 책임의 장이 될 수 있다.

(2) 참여: 환대와 거처의 개방

둘째 요소는 참여다. 주민자치의 출발점은'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보다'누가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라는 질문이어야 한다. 생활 돌봄의 사각지대, 고립된 노인, 이동약자, 이주민 가정, 위기 청소년과 같이 쉽게 보이지 않는 얼굴을 공적 의제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 주민자치는 윤리적 깊이를 얻는다. 레비나스에게 주체는 자기만의 성채를 쌓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거처'를 타자에게 열어 타자를 맞아들이는 존재로 이해될 수 있다(Levinas, 문성원 역, 2024). 이러한 거처의 개방은 선교적 교회가 지역사회에 참여할 때 단순히 주민자치 회의에 참석하는 행정적 행위를 넘어, 교회의 물리적 공간과 인적 자원, 그리고 관계망을 주민들의 공론장으로 내어주는 자기 비움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에 있어 참여란 제도적 회의에 이름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교회의 담장을 낮추고 타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존재론적 개방이다.

이러한 참여는 교회 건물을 회의 장소로 제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의 시간, 공간, 관계, 돌봄의 역량을 지역의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교회가 자신의 공간과 관계망을 지역 이웃과 나누는 순간, 주민자치는 추상적인 제도가 아니라 타자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구체적 장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자아의 폐쇄성을 깨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참여야말로 선교적 교회가 주민 자치안에서 감당해야 할 환대적 실천이다.

⑶ 숙의: 제삼자와 정의의 실현

셋째 요소는 숙의다. 제삼자의 공간에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다수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숙의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주민들이 상대를 배제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판단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가장 크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가장 쉽게 잊히는 주민의 목소리가 공론장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약자의 얼굴을 잊지 않는 숙의만이 윤리적 주민자치의 이름에 합당하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제삼자의 등장은 한 사람의 타자를 넘어 다수의 타자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때 타자들의 요구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곧 정의의 문제로 등장한다(Levinas, 문성원 역, 2024). 본 논문은 이 제삼자의 정의 개념을 주민자치 의사결정 과정인 숙의의 신학적·윤리적 번역으로 해석한다. 주민자치회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는 숙의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외된 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적 정의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숙의는 회의 기술이나 절차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가 보이지 않게 되었는지를 묻는 윤리적 훈련이다. 선교적 교회는 주민자치의 숙의 과정에 참여할 때 자기 신앙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으로 서기보다, 발언하기 어려운 이웃의 얼굴이 공론장 안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돕는 책임 공동체로 서야 한다.

⑷ 신뢰: 대속과 책임의 축적

넷째 요소는 신뢰다. 사회적 자본 연구는 주민자치가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김순은, 2014 ; 윤원수·양덕순, 2014). 그러나 신뢰는 단순히 자주 만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내가 배제되지 않았다는 경험, 나의 목소리가 실제로 들렸다는 경험, 공동체가 나의 취약함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신뢰는 행정적 효율성의 산물이기보다, 레비나스적 의미에서 환대와 책임이 축적된 사회적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레비나스 윤리의 정점인 대속은 타자의 고통과 책임을 주체가 대신 짊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주체가 타자를 위해 스스로‘인질’이 되기를 자처하는 구조로 설명된다

(Levinas, 문성원 역, 2024). 필자는 이러한 대속적 책임이야말로 파편화된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주민들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 동력이자 실천적 기제라고 판단한다. 지역공동체 안에서 신뢰는 교회가 대속적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도덕적 자산이다.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짐을 함께 지는 교회의 자기희생적 태도는 깨어진 지역사회의 관계를 회복하는 신뢰의 토대가 된다.

따라서 주민자치에서 신뢰는 행정 절차의 효율성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주민들이 서로의 취약성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가 약자의 고통을 함께 책임진다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 선교적 교회는 이 신뢰 형성의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을 과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타자의 짐을 함께 지는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의 축적이 주민 자치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윤리적 동력이 된다. 물론 레비나스의 윤리는 기독교 신학과 동일한 체계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나 타자의 얼굴 앞에서 책임이 선행한다는 그의 통찰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자기 비움이라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구조와 깊이 상응한다. 이러한 점에서 레비나스 윤리는 신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타자를 대상화하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표 1> 레비나스 윤리와 선교적 교회·주민자치의 통합 분석틀

레비나스 타자윤리 개념	의미	선교적 교회로의 적용	주민자치 및 거버넌스적 적용
얼굴	타자의 현전이 먼저 나를 호출함	주민을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만나는 존재 방식	주민을 통계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주체로 대면하는 제도
비대칭적 책임	권리 이전에 타자에게 먼저 책임짐	교회의 자기 확장보다 타자의 필요를 앞세우는 공적 책임	다수의 이익보다 취약한 주민의 호소를 우선 고려하는 구조
환대	타자가 타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자리 비움	공간 개방, 경청, 자기비움의 선교	접근성 보장, 참여 장벽 완화, 포용적 의사소통
대속	타자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할 수 없음	돌봄과 연대의 실천, 고통의 공동 부담	취약층 대변, 생활문제 공동 해결, 책임의 분담
제삼자와 정의	다수의 타자들 앞에서 윤리의 제도화가 요청됨	종교적 언어를 공공의 언어로 번역하는 공적 참여	숙의, 배분, 갈등조정, 소수자 보호를 포함한 정의의 실현

<표 1>은 레비나스의 주요 개념이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의 실제 문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특히 비대칭적 책임의 개념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를

교정한다. 우리는 대개 '기브 앤 테이크'식의 평등한 관계를 상상하지만, 레비나스는 내가 타자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더라도 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주체의 윤리적 본질이라고 말한다. 이는 교회가 주민자치에 참여할 때 어떤 보상이나 교회 성장을 기대하기보다, 타자인 주민 그 자체의 존엄성을 위해 헌신해야 함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한다.

V. 선교적 교회론 관점에서 주민자치 참여의 의의

1. 선교의 대상화 비판과 타자 중심 전환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Church)의 관점에서 주민자치 참여는 단순한 사회봉사나 지역사회 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참여하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주민자치 참여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활동의 한 형태이다.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의 접점은 먼저 교회의 자기비판에서 나타나야 한다. 교회의 이러한 자기비판은 교회가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때 지역사회를 선교의 대상, 교회의 잠재적 확장 영역, 혹은 이미지 개선의 무대로 여기는 태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레비나스의 얼굴 개념은 교회가 이러한 도구적 접근을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주민과 주민자치 조직은 교회가 변화시켜야 할 객체가 아니라, 먼저 그 얼굴 앞에서 교회가 자신을 성찰해야 할 타자이다. 이러한 전환은 선교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 놓는다. 선교는 더 이상 교회 밖으로 나가는 활동의 총합이 아니라, 타자의 고통과 호소 앞에서 교회가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 방식이 된다. 이때 주민자치 참여는 단순한 시민적 봉사가 아니라 공공적 제자도이며, 복음의 사회적 증언이 된다. 따라서 주민자치 공간에서 교회는 주도권을 쥐는 기관이 아니라 배우고 듣고 동행하는 공동체로 서야 한다. 동시에 주민자치 역시 교회를 하나의 이해집단이나 자원 제공 기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공적 주체로서 지역의 선과 정의를 위해 기여 할 수 있다. 다만 그 참여는 종교적 헤게모니의 언어가 아니라 번역 가능한 공공 언어, 강요가 아니라 설득,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는 서로를 정화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

2. 선교적 교회의 공공성과 환대의 실천

선교적 교회의 공공성은 추상적 담론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로 입증된다. 첫째, 공간의 개방이 필요하다. 교회 건물과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행위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이 공간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신학적 선언이 될 수 있다. 낯선 주민이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일은 레비나스적 환대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공적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생활 밀착형 동행이 요구된다. 선교적 교회는 주민자치 회의체에 이름만 올리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의 실제 문제, 곧 돌봄, 안전, 고립, 세대 갈등, 다문화, 빈곤, 교육, 환경에 대한 경청과 연대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해결사라기보다 동행자에 가까워야 한다. 주민의 언어를 듣고, 필요를 함께 분별하고, 다른 기관과 연결하며, 취약한 주민이 홀로 남지 않도록 관계망을 만드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공공적 책임이다. 셋째, 취약층의 대변이 필요하다. 주민자치 과정은 대체로 발언 능력과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자기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말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권력 행사가 아니라 레비나스적 의미의 대속과 대변의 실천이며, 마태복음 25장이 말하는 가장 작은 자를 향한 돌봄과도 연결된다. 넷째, 종교 언어와 공공 언어 사이의 번역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가 샬롬, 사랑, 이웃, 섬김, 정의라는 신학적 언어를 사용할 때, 주민자치의 공론장에서는 이를 돌봄, 포용, 참여, 안전, 공공선, 신뢰와 같은 공유 가능한 언어로 번역할 수 있어야 한다. 번역 없는 참여는 오해를 낳고, 자기 언어만을 앞세우는 공공성은 결국 타자를 다시 배제할 위험이 있다.

3. 주민자치를 통한 레비나스의 실천 모형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와 주민 자치의 통합을 위한 실천 모형으로' 경청-환대-공동 결정-책임의 제도화'의 네 단계를 제안한다. 첫째, 경청의 단계에서 교회는 지역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민의 얼굴과 서사를 듣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마을 조사, 비공식 만남, 돌봄 현장 방문, 지역 네트워크 대화는 이 단계의 핵심 실천이 된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지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공동체가 된다.

둘째, 환대의 단계에서 교회는 공간과 관계를 개방한다. 주민 모임 장소 제공,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규모 만남, 갈등 당사자 간의 안전한 대화 공간 마련은 환대의 구체적 실천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행사의 주최자나 관리자가 되기보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공동 결정의 단계에서 교회는 주민자치의 공식 구조 안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의제를 다루며, 자신의 이해만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선을 위한 판단에 참여해야 한다. 이때 교회는 종교적 특권을 주장하지 않고, 제삼자의 정의를 고려하며, 특히 취약한 이웃의 관점에서 의제를 재구성하려

고 노력해야 한다. 공동 결정은 교회가 지역사회 위에 서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책임의 제도화 단계에서는 타자에 대한 책임이 개인의 선의나 일회적 실천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과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와 지역 네트워크는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조, 소외된 주민의 목소리를 공적 의제로 연결하는 숙의 체계, 돌봄 공백에 대응하는 연계 시스템,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장치들이 정착될 때 교회의 공공적 참여는 일시적 이벤트를 넘어 타자를 위한 책임의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게 되며, 그 결과 지역사회 안에서 신뢰와 협력, 정의와 돌봄이 축적되는 책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체계 구축보다는 취약한 타자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구조의 제도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 모형은 선교를 주민자치 안으로 흡수하거나 주민자치를 교회 사역의 하위 영역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가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자를 향한 책임과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모델이다. 이때 교회의 정체성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 교회는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4. 비판적 검토와 한계

이러한 통합 논의에는 몇 가지 긴장이 존재한다. 첫째, 레비나스의 비대칭적 책임은 현실 공동체에서 과도한 부담과 번 아웃을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교회와 주민자치 모두 소수 헌신자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지속 가능성이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의 윤리는 개인적 영웅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 분담과 제도적 보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주민자치 참여는 정교분리와 종교 중립성의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회가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과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이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공공 언어로의 번역, 과정의 투명성, 타자 존중, 그리고 자기 특권의 절제이다.

셋째, 주민자치 자체가 국가와 행정의 논리에 흡수될 위험도 있다. 주민 참여가 실제 권한 이양 없이 동원과 정당화의 도구가 될 때, 교회의 참여 역시 쉽게 제도적 장식물로 소비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자치가 실제로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론적 통합에 초점을 둔 문헌 연구이므로 구체적 지

역 사례에 대한 실증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지역교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본 논문이 제안한 윤리적·신학적 틀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거나 실패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교회론의 재구성: 타자를 위한 공동체

레비나스와의 대화는 선교적 교회론의 교회 이해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든다. 교회는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종교 조직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 보냄 받은 공동체로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이때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감수성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 교회의 정체성은 '구별됨'과 '열림'의 긴장 속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론적 전환은 예배와 교육, 봉사와 선교, 지역 참여를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게 한다. 예배는 공적 책임으로부터 분리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타자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도록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리여야 한다. 교회 교육 역시 교리 지식의 전달에 머물지 않고, 낯선 이웃을 만나는 법, 공공의 언어로 대화하는 법, 차이를 견디며 함께 숙의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성숙은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 이러한 윤리적 감수성의 성숙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교회의 리더십은 통제와 동원보다 분별과 경청, 권한 위임과 공공 협력을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선교적 리더십은 지역사회 안에서 교회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가 없어도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때 교회는 중심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역의 샬롬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된다.

본 논문이 시도한 통합은 철학을 신학 아래 종속시키거나, 반대로 신학을 윤리 철학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신학이 종종 간과하는 타자의 타자성을 날카롭게 드러내며, 교회가 자신의 언어와 제도 속에 타자를 포섭하는 위험을 비판적으로 비춘다.

반대로 기독교 신학은 레비나스가 충분히 해명하지 않는 책임의 근원과 목적, 곧 왜 타자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창조와 성육신,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서사로 응답한다. 따라서 철학과 신학의 만남은 상호 대체가 아니라 상호 정화와 상호 조명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철학은 신학을 자기비판 하도록 만들고, 신학은 철학적 윤리에 역사적·구원사적 방향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상호 조명은 선교적 교회의 공공 실천을 더 겸손하고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이 대화는 언제나 맥락화의 과제를 동반한다. 서구 철학과 서구 선교 담론을 한국의 지역사회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제도 문화, 종교 지형, 주민자치의 실제 운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세심한 번역이 필요하다.

VI. 결론

본 논문은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가 공유하는 핵심 문제를 타자성의 문제로 파악하고, 이를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성서적 샬롬 신학을 통해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로서 지역의 공공선에 책임져야 하지만, 그 실천은 언제나 타자를 대상화할 위험을 안고 있다.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협치를 제도화하지만, 윤리적 토대가 결여될 경우 절차주의와 다수자 중심 논리로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레비나스의 얼굴, 비대칭적 책임, 환대, 대속, 제삼자의 개념은 이 두 담론을 동시에 비판하고 새롭게 연결하는 윤리적 문법을 제공한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이러한 윤리적 문법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하나님 형상론, 성육신, 이웃사랑, 마태복음 25장의 작은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예레미야 29장 7절의 샬롬 명령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향을 얻는다.

교회는 자신이 서 있는 지역의 평안을 구해야 하며, 그 평안은 가장 약한 주민을 포함하는 공공적 평화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자치 참여는 교회 본질과 무관한 외부 활동이 아니라, 보냄 받은 공동체가 지역의 샬롬을 위해 감당하는 선교적 책임의 한 형식이다. 결국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의 진정한 접점은 권력, 영향력, 조직 확장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 앞에 서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교회가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고, 주민자치가 타자와 함께하는 제도가 될 때, 두 영역은 하나의 지향점으로 수렴된다. 그 지향점은 지역의 샬롬이며, 더 엄밀하게 말하면'타자를 위한, 그리고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한국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배워야 할 공공적 제자도의 형태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라는 서로 다른 학문적·실천적 영역을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를 매개로 연결하였다는 데 있다. 기존의 선교적 교회론 연구가 주로 교회의 정체성, 사역 유형, 공공성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교회가 왜 타자를 향해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윤리적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그동안 주민자치 연구가 제도 설계와 참여 확대, 행정적 성과에 집중해 왔다면, 본 연구는 주민자치를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책임과 환대의 실천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는 각각의 영역을 넘어 공공적 책임과 공동선의 추구라는 공통의 지평 위에서 만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논문이 제안한 '경청-환대-공동결정-책임의 제도화' 모형은 교회의 지역사회 참여를 단순한 봉사나 행사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공공적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 교회는 주민을 선교의 대상이나 프로그램의 수혜자로 바라보지 않고, 먼저 그들의

얼굴 앞에 서서 경청하고 환대하며 함께 결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역시 단순한 참여의 절차를 넘어 취약한 타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적 책임을 축적하는 윤리적 제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교회는 지역사회와 분리된 종교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신뢰와 돌봄, 정의와 화해를 촉진하는 공공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이 제시한 이론적 틀을 실제 지역교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 대형 교회와 소형교회, 다양한 주민자치 운영 환경에서 타자 중심의 선교적 실천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뿐 아니라 공공신학, 시민사회론, 공동체주의 이론 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서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며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교적 교회와 주민자치의 만남은 단순한 협력의 모델을 넘어, 타자를 위한 공동체와 책임의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실천 신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남는다. 첫째, 실제 지역교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 사례를 질적·비교 연구로 축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대칭적 책임과 제도적 지속 가능성의 긴장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한국적 사회문화 맥락 속에서 종교 언어와 공공 언어의 번역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와 선교적 교회론, 주민자치를 하나의 실천 신학적 틀 안에서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 속 교회의 공공적 존재 방식에 대한 하나의 설득력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김경은 (2022). 환대의 영성을 위한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고찰. **신학과 실천**, 78, 159-183.

김도형·문성원 역 (2022). **타자성과 초월**. Levinas, E. (1970). *Altérité et transcendance.* 그린비.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2025). **전체성과 무한: 외재성에 관한 시론**. Levinas, E. (1961). *Totalité et Infini: Essai sur l'extériorité.* 그린비

김병길·장훈태 역 (2011). 변화하는 선교: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전환. Bosch, D. J. (1991).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기독교문서선교회.

김순은 (2014).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 시범실시 사례 분석: 역촌동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3), 3-34.

문성원 역 (2024).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 Levinas, E. (1974). *Autrement qu'être ou au-delà de l'essence*. 그린비.

박영돈·손신·황을호 역 (2013). **선교적 교회**. Guder, D. L. (1998). (Ed.).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기독교문서선교회.

박예은 (2016). 레비나스의 타자윤리와 제3자의 정치철학. **인문논총**, 73(1), 307-336.

박원길·황병준 (2015). '선교적 교회'를 위한 목회 리더십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35, 43-73.

박종균 (2025). '타자의 얼굴'과 환대의 성서 윤리적 의의. **선교와 신학**, 67, 77-109.

성석환 (2024). 한국적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실천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재구성. **선교와 신학**, 64, 75-107.

심상우 (2019).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체'로서의 마을공동체: 레비나스의 책임윤리를 중심으로. **현대유럽철학연구**, 53, 364-397.

윤원수·양덕순 (2014). 주민자치센터 참여만족도가 지역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45, 57-86.

이경직 역 (2004). 손대접: 기독교 전통 안에서 환대의 회복. Pohl, C. D. (1999).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복있는사람.

이용재 역 (2017). **미국의 민주주의 I** . Tocqueville, A. de. (1835). 아카넷.

이후천 (2013).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사례와 그 기준지표에 대한 고찰. **선교신학**, 34, 141-165.

주상락·최동규 (2021). 한국형 선교적 교회 연구: 현상학적 질적 연구 중심으로. **선교신학**, 64, 252-288.

행정안전부 (2022). **2022 주민자치회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

허성갑 역 (2007).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Newbigin, L.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IVP.

홍종락 역(2014). **사랑과 정의**. Wolterstorff, N. (2011). *Justice in Love*. IVP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enaroyo, L. (2022). The Significance of Emmanuel Levinas' Ethics of Responsibility for Medical Judgment. Medicine. *Health Care and Philosophy*, 25, 327–332.

Bosch, D. J. (1991). *Transforming mission: Paradigm shifts in Theology of Mission*. Orbis Books.

Critchley, S. (2014). *The ethics of deconstruction: Derrida and Levinas* (3rd ed.). Edinburgh University Press.

Critchley, S. & Bernasconi, R. (Ed.). (2002). *The Cambridge companion to Levin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ser, G. (2014). Scapegoating Immigrants is the Oldest Trick in the Book. Guardian.

Guder, D. L. (Ed.). (1998).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Eerdmans.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Levinas, E. (1985). *Ethics and infinity: Conversations with Philippe Nemo*. Trans. Cohen, R. A. Duquesne University Press.

Levinas, E. (1998).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Trans. Lingis, A. Duquesne University Press.

Moltmann, J. (1977). *The church in the Power of the Spirit*. SCM Press.

Newbigin, L.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Eerdmans.

König, J. (1985). *New Testament hospitality: Partnership with strangers as promise and mission*. Fortress Press.

Tocqueville, A. de. (2000). *Democracy in America*. Trans. Mansfield, H. C. & Winthrop, 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Missional Ecclesiology and Resident Self-Governance: A Practical Theological Study Based on Emmanuel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류 영 식 (숭실대학교)
배 귀 희 (숭실대학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논문은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 윤리와 성서적 '샬롬(Shalom)' 신학을 매개로 선교적 교회론과 주민자치 사이의 관계를 재해석한다. 기존의 선교적 교회론 연구는 주로 교회의 정체성, 실천, 리더십, 공공성을 강조해 왔으며, 주민자치 연구는 제도 설계, 참여, 행정 성과, 사회적 자본에 치중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지역공동체가 왜 취약한 타자에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윤리적 문법'의 제시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론적이며 통합적인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본고는 레비나스의 핵심 개념인 얼굴, 비대칭적 책임, 환대, 대속, 그리고 '제삼자'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성육신, 이웃 사랑의 계명,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0장, 특히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과 대화시킨다. 연구의 결과로, 선교적 교회는 주민을 전도 확장의 대상이나 종교 프로그램의 수혜자, 혹은 제도적 성장의 도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주민은 교회의 경청과 환대, 공적 책임과 공동 참여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타자'로 만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또한 단순히 절차적 참여나 행정적 협력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민 자치는 취약한 목소리를 보호하고, 참여를 넓히며, 숙의를 촉진하고, 공동선을 위한 신뢰를 배양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경청-환대-공동 결정-책임"이라는 실천적 모델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교회가 종교적 지배나 전략적 자기 확장 없이 지역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레비나스 윤리, 선교적 교회론, 주민자치의 수렴은 타자를 '위하고'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한 실천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여기서 공적 제자도는 지역적 샬롬을 추구함으로써 구체화 된다.

주제어: 선교적 교회론, 에마뉘엘 레비나스, 타자 윤리, 주민자치, 환대, 샬롬, 공적 제자도